

#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19,

## 요한복음 18:1-19:42

© 2024 David Turner 및 Ted Hildebrandt

이것이 David Turner 박사와 요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9과,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장사되심입니다. 요한복음 18:1-19:42.

안녕하세요, 우리는 방금 예수님의 고별 담화 공부를 마쳤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난 이야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미 초기 비디오를 보셨다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디오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John이 문학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첫 번째 비디오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책을 표징의 책, 12장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공개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영광의 책으로 묘사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의 고별 담화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광의 책과 표징의 책과 영광의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요한에게 하신 공적, 사적 사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난 이야기, 즉 예수님의 체포, 재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장사되는 이야기로 들어가 그분의 부활과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비디오 옆에서 18장과 19장을 보고 마지막 비디오에서 20장과 21장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8장과 19장을 생각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문단 단위로 비교하고 대조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관복음서와 일치한다. 우리는 이 비디오에서 그 일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복음서 각자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복음서가 펼쳐지는 방식으로 복음서의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것이 복음서 연구에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 다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고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적인 유형의 비교와 이런 작업을 시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참으로 매우 고귀한 작업이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싶은 주요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개요나 입체적인 그리스도의 생애를 갖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에 관한 그런 종류의 기록을 쉽게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음성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각 복음의 강조점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복음에. 따라서 공관복음에서도 발견되는 요한복음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보여 주는 슬라이드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요한의 관계가 아니라 공관 전통에 대한 요한의 관계나 그 반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과 19장의 서술적 흐름을 살펴보고 싶고 먼저 18장부터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다음 1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은 예수께서 겔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매우 짧은 전환점인 18장 1절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셨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지도를 잠시 살펴보고 이것이 어땠는지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드론 강을 건너면 올리브 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건너편에 동산이 있는데 예수와 제자들이 그리로 들어가니라 거기 들어가자마자 이는 분명히 그들이 전에 다니던 곳이요 유다가 알았으므로 유다가 예수를 잡으려고 거기에 온지라 군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온 관리 몇 사람과 함께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로마 군대 중 일부가 참여한 연합군인지 아니면 성전 경찰이었을 것인지 정확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산헤드린 일부와 함께 유대인 성전 경찰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줄거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반과 체포, 재판이 펼쳐지면서 베드로와 함께한 상황과 전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유다의 배반을 책에 묘사된 대로 비교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인과 그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모델로 삼는 가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드린 헌금이 여기에 있습니다. 피터는 주인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며 검을 휘두른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이는 베드로가 칼을 겨누는 목표에서 약 6인치 정도 빗나갔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인데, 그가 성공했다면 그에게 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시는데, 18장 12절에서는 안나스가 그 날 대제사장의 아버지였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으나 예수께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소 이상하고 이상하며 학자들은 논쟁을 벌이고 왜 그런 식으로 행해졌는지, 안나스가 아마도 그 인물인 그의 아들 가야바 뒤에 있는 권력자였는지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행 사이를 정확하게 읽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안나스보다 먼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방금 3인칭으로 광범위하게 묘사된 예수님과 안나스와 약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부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제로 그다지 많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라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끝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놀라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을 하면서 놀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말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장과 16절에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서 심리, 즉 재판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추웠어요.

제자들과 관리들은 둘러 서서 불을 쪼고 있었습니다. 피터도 불 옆에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은 19절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심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히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

왜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으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을 말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청문회 과정에서 예수가 부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가야바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축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께서 가야바의 청문회에 참석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보내졌다는 것뿐입니다.

물론 여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야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가야바가 14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충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었습니다(18장 14절). 따라서 우리는 가야바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약삭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예수를 없애면 전체 기관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상황에 메시아적 주장과 로마의 개입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야바 앞에 계시자 장면은 다시 베드로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8장 25절부터 27절에는 가야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 대신 베드로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도 안나스의 집 뜰에 있는 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묻기를, 당신도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증 중 하나는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아는 자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자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그 시점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지에 대해 이 시점에서 숙고하지 않지만,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죽음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의 자랑스러운 능력에 대해 갑자기 어떤 자기 인식이 그에게 부딪혔는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가 어떤 실질적인 압력이나 강박을 받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기가 베드로를 이야기에 남긴 곳이라면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21장에는 베드로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예수 이야기는 베드로전서의 예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께서는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보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꽤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3주기나 3단계, 3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18장과 28절에서 빌라도 앞에 도착하십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빌라도가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기 훨씬 전인 18장 2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9절과 16절. 빌라도가 예수를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에는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기를 정말로 원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반복하는 것은 아마도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증인, 즉 두세 명의 증인의 원칙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빌라도의 동요는 그 자신의 마음으로는 예수께서 어떤 잘못을 하셨다는 것을 전혀 확신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대중의 바람에 응할 것이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세부사항과 아이러니가 많이 있고, 이 복음서의 인물인 빌라도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들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군중을 조종하는 방식에 대해 배웁니다.

그래서 18:28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 아침이었고, 부정을 피하기 위해 유월절을 먹을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궁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과 그가 잘못하지 않은 일들을 꾸며낸 것에 대해 본질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것이 관참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의식적 순결에 대해 꼼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죄목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29절에서 그들이 일종의 회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으면 여기로 데려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다면 왜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당신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대로 그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도 처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중대한 사건이고 분명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로마 관할권에서는 로마 당국만이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오직 사형만을 승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처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이해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비유를 들어 3장 14절에서 자신이 땅에서 들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몇 번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분노하여 그를 처형하려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그들은 돌로 쳐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점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집행자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들려 올려진 자로서의 죽음의 방식이 범죄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며, 그 혐의가 무엇이며,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나서, 33절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러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적어도 예수가 참으로 만왕의 왕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실제로 확인했음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유대인. 예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당신에게 말했습니까? 즉, 내가 왕위를 주장하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든 걱정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방금 그런 말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빌라도는 약간 화가 났습니다. 이 위성 속주에서 로마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후진적인 위치에 있는 이 로마 총독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이 사람들을 다루는 위대한 로마 제국에 속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반유대주의는 고대 문화에 만연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5절을 보면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폭발하거나 화를 내며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말하는 장면을 거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은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그것을 조롱의 용어로 뱉어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는 유대인인가요? 너희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희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즉, 우리가 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 문제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번에도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 또는 아니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소 모호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체포되는 것을 막았겠지만, 이제 내 왕국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호한 대답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가 자신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종의 왕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지적하고 37절에서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된 이유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일종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이니까 내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따라서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가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냉소적인 태도로 대답하고 토론을 끝맺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빌라도에게도 이러한 철학이 결여되어 있으며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청문회 첫 번째 단계입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에게 말하러 다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고발할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노라 하니 즉, 나는 그 사람이 당신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유월절 기간이므로 로마 군주들이 매년 이맘때에 유대 민족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전통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우리 포로 중 한 명을 석방하는데, 그 사람을 당신에게 돌려주면 우리는 공평하게 대하는 게 어때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 시점에서는 그냥 놓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들은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라”라고 외칩니다.

분명히 40절이 묘사하는 방식에 따르면 바라바는 반란에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바라바는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바라바가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작은 도둑이나 소매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침입했을 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길에 있는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도둑이 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불안을 조성하고 정치적 전복자가 되기 위해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 주기는 29절 부근에서 시작하여 19장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를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바라바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를 좀 더 사적인 장소로 데려가거나 아마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확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이것은 법학에 있어서 우리의 현대적 감성과 정확히 맞지 않으며, 유죄가 없고 공정하게 대우받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권리,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변호사 참석과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모든 것.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채찍질을 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멜 깁슨의 영화에서 생생하게 묘사된 로마의 채찍질 관행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쭉 뺀고, 팔을 벌리고, 묶고, 여러 개의 가죽끈이 달린 채찍으로 채찍질을 했습니다.

가죽 끈에는 다양한 날카로운 물건이 박혀있어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끔찍한 행위였으며 확실히 예수님에게는 극도로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피를 흘리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군인들은 19-2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상처에 비꼬는 모욕을 더하기 시작하고, 그를 왕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점령군, 즉 로마 제국의 먼지가 많은 주변 지방에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는 이곳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처음부터 유대 민족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저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소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며 비꼬는 말을 하여 그에게 귀족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 비꼬듯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의 뺨을 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도 예수를 채찍질하면 군중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에게 나오겠습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니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보고 다시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또는 두 번째 시험 주기에서 세 번째 단계로 이동합니다. 빌라도는 19장과 6절에서 왜? 너희는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당신은 그것을 할.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르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설명, 이교나 황제 숭배 숭배에 어느 정도 빠져 있던 로마 관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종의 신으로부터 온 사절, 신적인 인물,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그에게 약간의 근심, 약간의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로 예수를 데리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를 놓아 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시도합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너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나를 해할 권세가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데려온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풀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백성들에게 끌려 나오시매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카이사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8절과 마찬가지로 13절에서도 빌라도는 이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황제와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를 놓아준다면 그들은 그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예수를 데리고 나가서 돌판이라 하는 곳에 재판석에

앉아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였느니라. 그를 데려가라, 데려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세 번째로 그의 처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이 장 전체의 모든 말씀 중에서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충실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오의 열병은 뚜렷하고 여러 면에서 매우 슬프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며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참 군주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지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충성스러운 로마 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카이사르 외에 다른 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8장 1절부터 19장 16절까지의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9장의 끝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챕터, 우리는 지금 챕터 19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장과 17절부터 우리는 인류 역사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인 십자가 처형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군인들이 예수를 데려간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주 짧고 잘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해골이 있는 골고다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두 사람도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는데 예수는 중앙에 있었다. 빌라도는 거기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팻말과 칭호를 붙이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 즉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정치적 발언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는 이것이 로마인들이 유대인 왕이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왕에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대신 어떤 권위도.

그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의 이 패를 읽는 유대인 중 많은 사람이 성 가까움에 있었는데 그 패는 아람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알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붙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쓴 것은 내가 썼다고 대답합니다. 나는 이것이 빌라도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마음속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옷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네 몫으로 나누어 누가 그 옷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박을 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것은 그들이 내 옷을 그들에게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 성경 시편 2218편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관련된 다른 사건과 함께, 그것은 그분의 옷이 처리된 방식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생각하신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 명의 다른 Mary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자기의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시며 그 제자에게는 보라 당신의 어머니이시니이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 구절을 2장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에 관해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마지막 말씀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어머니를 미루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결혼식에 와인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리아가 요청한 일을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19장에서 예수가 마리아를 무례하게 여기거나 2장에서 마리아를 팔짱을 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를 가능한 한 많이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본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체, 과정, 고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된 도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문화를 통해 십자가형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십자가, 즉 빈 십자가와 예수님의 몸이 달린 십자가와 같은 모양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십자가는 T자 모양에 더 가깝습니다.

일부는 X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당국이 처형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또한 예수가 다른 텍스트에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단순히 밧줄로 십자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 그분의 옷으로 성경적 성취와 예수님이 임종 직전까지 그분의 어머니를 돌보신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아주 간단한 언어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28절,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그곳에는 포도주 식초 한 병이 있었고 그들은 거기에 스펀지를 적서 그에게 갖다 대어 그가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음료를 받고 나면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는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포기하였다. 이 매우 간단한 언어는 인류 역사, 세계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영어로 된, it is done이라는 문구는 우리에게 죽는다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 순간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일을 완수하셨을 때, 그분은 악한 자를 이기셨고, 세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죄악적인 반대를 이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패배의 외침으로 본다. 난 끝났어, 져어,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부르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주 예수의 직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서두에서 기도하실 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마쳤습니다. 이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함성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예비일, 곧 특별한 안식일 전날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성일 동안 거기에 두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서 옮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거룩한 날이 오기 전에 희생자들이 죽어 이 기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몸을 지탱할 수 없도록 하고, 그들의 모든 무게를 매달게 됩니다. 그래서 곧 숨을 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질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군인이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갑자기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다소 이상한 세부 사항은 요한일서 5장에서 기억되며 이것이 예수님이 피뿐만 아니라 피와 물로 세상에 오신 방식임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이 참되다. 이것은 19장과 35절에서 다시 한 번 사랑받는 제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희생 제물에 관한 여러 구약의 본문에서 그분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언급인 36절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또한 37절에는 스가랴서 12장과 10절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재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장사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38절부터 38절까지로 끝납니다. 42장 3장까지 돌아가면 몇 가지 내용이 연결됩니다. 나중에 38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공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비밀리에 행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의회에 그들이 예수를 대하는 방식이 올바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예수의 시신을 향료와 아마포로 감쌌습니다. 장례 관습에 따라 그들은 그를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 날은 유대 명절 전의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무덤이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관복음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일을 설명하는 방식과 공관복음서가 하는 방식 사이의 모든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대조되는 요한복음. 물론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삶의 많은 것들에 대해 독특하고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과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잠시 지리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성전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에서 북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락방 담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작별 담화, 우리가 그렇게 부를 작별 담론이 여기, 때로는 오늘날 서부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시온산이라 불렀다. 신약시대는 물론 고대에도 시온산은 다윗의 성 성전산의 남쪽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이 도시의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의 이 지역에는 현재의 자파 문 근처에 헤롯 궁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신 곳은 이 도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통적으로 예수께서 로마 요새 안토니아에서 재판을 받으셨던 곳이 성전 울타리의 북서쪽인 로마 요새 안토니아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가르쳤던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이 사각형은 여기에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여기 주지사 관저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여기 성전 산이 아니라 여기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셨던 곳은 전통적으로 감람산과 성전산 사이의 기드론 계곡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으로 기념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어느 시점에 예수께서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 그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이 골짜기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골짜기의 서쪽을 떠나 동쪽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는 이 근처에 만국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저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올리브 산으로 데려가며 길을 따라 여기로 내려오면 바로 저기 벽에 있는 문을 통해 겿세마네 동산의 추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상에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겻세마네 동산에 들어서면서 성전 산 주변의 벽을 바로 올려다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미지가 그다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바로 여기 현재 오마르 모스크의 황금 돔, 소위 바위 돔이 보입니다. 이는 성전이 있는 곳, 즉 성전의 내부 부분 근처 어딘가에 있습니다. 해왔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가 정말로 이 지역에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성전의 지성소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성전이 있는 건물의 꼭대기는 그랬을 것입니다.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한다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나이가 꽤 많고, 다 투박하고 별것도 아닌데, 우리 올리브나무는 이전 나무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만약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당신의 가이드는 아마도 이 올리브나무가 예수님 시대에 여기에 있었다는 의미의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의 유전적 후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 그 자리에 있던 나무들. 내 말은, 누가 알겠어요? 나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며, 실제로 알 수 있는 사람이나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할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모델에서의 모습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께서 다락방에 계셨다면 다락방은 이 움푹 패인 곳의 반대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서쪽 예루살렘으로 여겨졌던 이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성전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물론 여기 예루살렘 성전 모델에는 기드론 계곡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도랑이 있을 뿐입니다. 감람산은 제가 팔을 뻗은 바로 여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겻세마네 동산도, 올리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이 근처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곡에서 고개를 들어 성전

인클로저의 동쪽 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 인클로저의 내부 부분, 즉 바로 그곳에 있는 성전을 눈에 띄게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쪽에서, 아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기 성전 산, 성전 본성은 아마 이 부근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로마 요새 안토니아는 이 근처 어딘가에 옛 성벽의 북서쪽 모퉁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총독 관저는 현재의 자파 문(Jaffa Gate) 근처 이 지역 어딘가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오래된 도시 성벽을 따라 거리가 이어지는 곳을 보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아마도 여기가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나는 착각할 수 있다. 나는 이 지역의 항공 사진을 보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형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다시 성전 모델로 전환하여 고대에 나타났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서쪽 모퉁이 북쪽에 있는 이곳의 요새와 자파 문 지역,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 자파 문 남쪽 이곳 근처 어딘가에 로마 총독이 사용하던 헤롯 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의 옛 도시를 산책하면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Via Dolorosa는 본질적으로 이 일반 지역에서 출발하여 이 지도에서 신약성서 시대에 있었던 성벽 바깥쪽 지역에 있는 작은 언덕 근처로 이동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고 갔다는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대 예루살렘 항공 사진을 다시 보면 이 지역의 안토니아 요새와 여기 회색 돔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개의 돔이 있는데, 하나는 더 좁고 그 뒤에는 더 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묘 교회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Via Dolorosa는 여기 이 지역에서 바로 여기 이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예수의 재판이 이곳에서 열리지 않았을 것이며 이 근처에서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것이고, 여기서 여기로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로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아 돌로로사는 14세기에 건설되었으며 그 이후 안토니아 요새부터 성묘 교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가 안토니아 요새에서 재판을 주재했을지 아니면 자파 문 근처 헤롯의 옛 궁전에서 재판을 주재했을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이 자파 문 근처의 총독 관저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19장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몇 가지 암시를 보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빌라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1961년 가이사랴에서 발견되었으며, 2차 용도로 알려진 곳에서 발견된 돌 블록입니다.

즉, 원래 건물의 원래 위치에서 옮겨져 다른 건물의 블록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대에는 전혀 특이한 일이 아니며 확실히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덩이는 귀한 것이었고, 전쟁 등으로 도시의 한 층이 무너지면,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해 다시 쌓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61년 가이사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타이베리움이라는 비문 자체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유대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이곳에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된 건물을 세웠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이사랴를 방문하시면 그 돌의 복제품을 보실 수 있으며 여기에서 라틴어로 필라투스(Pilatus)라는 단어와 그 위에 있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Tiberius Caesar)에 대한 언급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다른 비문과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이와 같은 비문이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해 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여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의 전체 버전을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구르는 돌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에 묻히셨습니다. 나는 갈릴리의 갈멜산과 므깃도 사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구르는 돌무덤의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또 다른 각도입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복잡한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 다른 구르는 돌 무덤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9~20마일 정도 떨어진 셰펠라에 있는 키르베트 미드라쉬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구르는 돌 무덤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을지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돌이 있고, 돌이 굴러져 무덤 입구를 덮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구르는 돌의 가장자리가 바로 여기 보이는 내부에는 무덤의 주요 금고가 있는 금고가 있으며, 이곳에는 시체가 묻힌 다양한 위치, 탑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구멍을 막는 데 사용되었던 종류의 돌이 땅에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멍에 꼭 맞도록 가장자리를 깎아 만든 나무 조각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대에는 각 칸마다 이러한 뚜껑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장례 풍습의 흥미로운 점은 부패한 시신의 뼈를 수거하고, 특히 가족이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경우 뼈를 수거하여 뼈 관절과 뼈의 관절을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납골당이나 뼈 상자에 넣으십시오. 이 글귀 때문에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로제트와 헤링본 패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얼마나 장식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꽤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끝에는 다소 우아하지 않은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에는 실제로 그것이 요셉의 가야바의 아들인 요셉 바르 가야바에게서 온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대제사장의 유해가 묻혀 있던 뼈 상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다소 멋진 것입니다.

다음은 좀 더 일반적인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약 10년 전쯤에 예수 형제의 납골당이라고 주장되는 또 다른 납골당이 발견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납골당에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복음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BAR, Biblical Archaeology Review 사이트를 Google에 검색하면 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 이야기가 전해지는 방식을 살펴보면, 예수가 다소 수동적이라고 묘사되는 방식과 예수가 실제로는 수동적이라고 묘사되는 방식 사이에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적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박혀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그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는 다소 무력한 개인, 다른 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동적인 개인입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읽고 그것의 다른 측면을 알아차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18장 4절.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칼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본질적으로 그들이 단순히 시대의 화용론보다 더 고상한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돌아가실 경우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솔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녀는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 문제에 관한 모든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더 큰 권위자들에게 밀려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수동적이고, 무력하고, 약한 개인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시며, 당신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는 예수님의 수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지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간은 찰나입니다. 18장과 19장에 대해서는 꽤 많이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사 흐름을 진행하면서 이미 간략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수난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의 해설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체포되신 방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방식을 통해 다양한 구약의 본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몇 군데에서 알아차린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야기의 몇 가지 핵심적인 신학적 요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가 왕이냐는 문제가 떠오릅니다.

18장 6절과 그 밖의 여러 곳에서 그의 왕권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빌라도의 표창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나는 그것들이 고대에 불려졌다고 믿습니다. 빌라도의 현수막, 십자가 위나 십자가 근처 어딘가에 놓인 빌라도의 표식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는 종교지도자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떤 의미에서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조종했던

방식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두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빌라도가 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이 유대인 왕들에게 행한 일이 실제로 유대인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즉 유대인보다 더 큰 왕이요, 그가 창조하고 들어간 세상의 왕이 바로 그 왕이니라. 그러므로 십자가 위의 이 제목에서 고려되어야 할 아주 심오한 교훈은 요한복음 초기에 왕이신 예수님의 주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자신을 세 번 부인할 것이지만 실제로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다소 유익하고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다에게서 확실히 배우는 한 가지는 은혜의 수단에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반드시 은혜의 목적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어울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소름 끼치는 생각입니다. 그분은 사역의 모든 시간 동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기적을 보았으나 어쩐지 그의 마음은 그것에 의해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유다는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에 대해 너무 환멸을 느껴 예수가 실제로 그가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통치 당국에 넘겨줍니다. 아마도 유다는 예수가 세상에 자신을 보여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문학적으로 정교한 방식으로 말하는 미묘한 방식으로 아마도 요한복음 16장에서 다른 유다가 물었던 질문일 것입니다. 왜 당신은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유다는 배반자 유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반자 유다는 예수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메시아, 즉 로마인들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이스라엘에 다시 가져오는 종류의 메시아가 아닐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유다가 그런 일을 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빵을 먹고 배가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과 같은 세계관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는 분명해졌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예수가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유다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 없는 가지 중 하나로 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15장의 가지로서 정원사, 아버지, 농부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확실히 여기서 약간의 가지치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으며 죽기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자신있게 자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피터가 바로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비디오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이야기의 상황에 의해 가지치기를 받은 후 예수님을 위한 사역으로 회복되는 구절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대한 비디오를 로마 팔라티노 언덕에서 발견된 3세기 후반부터 1세기 후반까지, 아마도 3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작품을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나는 우리가 2세기라고 말하고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알렉사메노스 그래피툼(Alexamenos Graphitum)이라고 불리며, 고대 초대 교회의 기독교 예배를 냉소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비기독교인 고대 로마인들이 그들의 종교적 유산에서 십자가를 우선시하거나 영광으로 여기거나 특징을 갖는 어떤 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 비문에는 알렉사메노스 개인의 이름이 나와 있으며 알렉사메노스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사베테 그는 신 테온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lexamenos는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분명히 이 낙서, 즉 흑화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자를 숭배하고, 존경하고, 경외심을 품는 사람을 조롱하고, 조롱하고, 조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십자가형의 희생자는 당나귀 머리를 가진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당나귀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당나귀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숭배하는 것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듯이, 나는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실제로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흑연을 처음 벽에 긁은 사람도, 어쩌면 이 사람도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상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를 숙고하지 않고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초대 교회에서 종종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것이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복음서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유대 민족을 비난하는 반유대주의적인 방법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일부 집단에서는 성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자기가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겼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갔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방에서 사형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빌라도의 도덕적 나침반은 분명히 그 정도였기 때문에 비록 본문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잘못을 하셨다는 결론에 실제로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하게 사형에 처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에 도움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의 삶에 보탬이 된다면, 그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거나 그의 상관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해준다면 기꺼이 예수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빌라도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우선, 빌라도가 유대인을 존중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그들의 요구에 응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로마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에게 위협이 될 왕의 존재를 그가 허용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더 작은 민족으로 보는 동일한 견해를 유지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 모양이나 부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다는 사실에 대해 농담을 합니까?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도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결점을 갖고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 빌라도를 모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빌라도의 또 다른 점은 그가 자신에게 좋을 때는 예수를 자유롭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치적 편의 때문에 기꺼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든 핵심가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빌라도에게는 영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모든 핵심 가치가 협상 가능했습니까? 빌라도에게는 일종의 센터가 있었습니까? 빌라도는 극도로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할 만큼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누가 신경 쓰는지 말합니다.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진실이 무엇인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등지에 깃털을 붙이는 것이 걱정됩니다.

성공할지 걱정이에요. 우리 총독의 통치를 어렵게 만드는 이 성가신 유대인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에게는 중심이 없고, 도덕적 나침반도 없고, 영혼도 없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공모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의 구원자로 밝혀진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의 권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팔려고 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열한 사람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빌라도에게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David Turner 박사와 요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9과,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장사되심입니다. 요한복음 18:1-19:42.